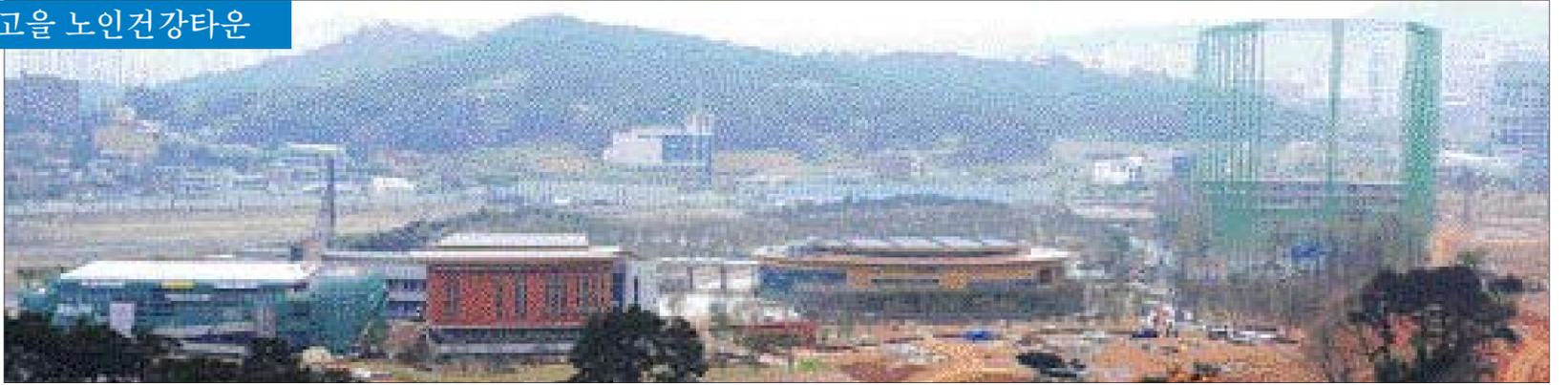


개관 2개월 앞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공간'이 될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이 오는 6월 개관한다. 체육관이나 관리동 등 일부 시설들과 녹지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공로를 통해 운영을 담당할 직원 채용도 완료돼 막바지 정리작업만 남아있다.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대규모 노인특화공간인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이하 노인건강타운) 개관을 앞두고 운영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해본다.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남구 노대동 빛고를노인건강타운 전경.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노인'만을 위한 전용공간인 빛고를노인건강타운은 부지면적만 41만2,724㎡에 달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체육·골프·의료 시설 ... 41만㎡ 녹색 실버 천국

헬스·공연장, 치매·퇴행성질환전문병원 들어서
인근 180ha에 수목원·'도시산림 서비스림'도

부지면적만 41만2,724㎡에 달하는 노인건강타운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1년까지 문화체육시설, 골프시설, 의료서비스 단지를 조성하는 3단계에 걸친 대규모 프로젝트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1단계 660억 원, 2단계 462억 원, 3단계 630억 원 등 모두 1천752억 원에 달한다.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전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할인혜택이 추가되는 이 '노인 천국'은 그동안 '효사랑 운동'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온 남구의 노대동에 자리를 잡았다.

◇시설과 프로그램=1단계 시설은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으로 8만4천347㎡의 부지에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프로그램실(요가, 체조, 단학, 기공 등), 관절염이나 요통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눈에 띈다. 당구장, 탁구장은 물론 이·미용실까지 갖췄다.

문화센터에는 그 동안 문화향유에서 '소외'됐던 노인들을 위한 영화감상실과 노래방, 컴퓨터실은 물론 도서·자료실, 카페, 전시실이 조성된다. 또 노인들이 숨겨진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대강당도 갖췄다.

비용 문제로 뜰에 대한 '투자'에 망설였던 노인들은 이제 체육센터에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수영장은 물론 헬스장과 조깅트랙, 건강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주는 건강분석실과 다목적 체육관까지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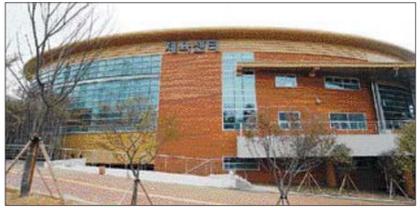
녹지로 둘러싸인 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 전용경기장, 배드민턴장과 더불어 가족들도 이용이 가능한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선다. 서비스동에는 목욕탕과 식당이 있는데, 목욕과 식사는 60세 이상 2천원, 65세 이상 1천원에 각각 가능하도록 해 가벼운 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

2단계 들어설 골프시설은 9홀 골프장, 75석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이며, 이를 운영하는 광주시도시공사가 매년 수익금 중 20억 원을 노인건강타운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췄다.

퇴행성질환전문병원, 치매병원,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

관, 파크 골프장 등이 조성되는 3단계 의료서비스단지는 시가 전남과 함께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호남권 유치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일명 류마티스·관절염센터)은 시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것으로 2011년까지 국비·지방비 등 모두 560억 원을 들여 빛고를노인건강타운



위로부터 체육센터·문화센터·복지회관

내 3만3000㎡ 부지에 180개 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류마티스·관절염 전문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인 고령친화제품종합체험관은 2011년까지 120억 원이 투입되며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 등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제품의 전시와 직접 체험기회 제공, 주거 및 요양, 문화 등의 정보제공, 교육기능, 제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등의 기업지원 역할까지 하게 된다.

◇조정=노인건강타운은 각 건물을 숲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조성되고 있다. 노인들이 도심 속에서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인근에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하고, 타운 내 나무 식재나 잔디 공간을 늘렸다. 시는 당초 15억 원이었던 그늘 숲 조성 사업비를 29억 원으로 증액해 신개념 조경계획을 세운 바 있다.

산책로에는 탄성 포장재를 도입해 무릎 관절이 약한 노인을 배려하기로 했으며, 잔디광장과 테니스장은 소나무 등 5천주와 관목 4만6천주 등 모두 5만1천주를 식재해 그늘숲을 만들고,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건강타운 뒷산 너머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해 180ha에 자연친화적인 '수목원'과 '도시산림'을 조성한다.

수목원은 산림청 지원 30억 원을 포함해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전·답 30ha를 매입해 수종 증식과 재배, 전시, 관리시설, 식물관, 꽃정원, 양묘장 등 자원 확충을 위한 공간으로, 수목원 주변 산림 150ha에 생태관찰로, 편의시설, 수생식물원, 우량수목을 증식해 산소공급량을 높일 방침이다.

◇교통 편의 등 기타=광주시는 노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우선 4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 시내버스조합과 협의해 버스 노선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볼 계획이다.

시와 빛고를노인복지재단은 노인이 노인타운 안으로 들어오면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며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주력했으며, 일일봉사와 실버를 지원해 노인들이 노인들에게 서비스하고, 자원봉사 등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공 노인전용공간으로, 타 시도에서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노인들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 찾아도 손색이 없는 공원 같은 타운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무석 빛고를노인복지재단 초대원장

빛고를노인건강타운의 운영을 맡은 (재)빛고를노인복지재단 나무석 초대 원장(74)은 15일에도 전북 고창을 거쳐 서울과 강원도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민간실버타운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노인건강타운을 알차게, 방문하는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기 때문이다.



"원장으로 선임된 직후 현장을 찾았는데, 그때 이 거대한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 후로 그는 틈틈이 각 지역의 실버타운들을 돌며 우수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서울대 노화장수연구소 박상철 소장을 직접 초청해 노인건강타운 내에 연구소를 설립을 재촉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주시에서 탈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광주시 부시장까지 역임한 뒤 지난 1993년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나 원장은 퇴임 후에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적십자 광주·

"노인들 세상과 교류의 장
젊음 되찾는 곳 만들 것"

전남회장 등 '일'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거의 없다.

"2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아있었는데, 그냥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했어요. 올라갈 만큼 갔다고 생각해 그만 뒀는데 오히려 그 뒤에 더

바빠졌습니다. 원장이 됐을 때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노인이고, 또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직책이라는 생각이 임했어요"

공무원 재직시절 시 내무국장에서 부시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한 것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공직에 있을 때는 술 한 잔도 못했습니다. 비리나 무원칙을 혐오했고, 그래서인지 술을 안 배웠죠. 퇴임하고 나서 한 잔 두 잔 늘더니 이제는 소주 한 병까지 마시게 됐어요.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지 참 모호합니다"

그는 노인건강타운이 '노인들이 젊음을 되찾는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6살 때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비로소 사회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60세 부터는 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험은 세상이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요. 사회적으로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노인건강타운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노인들도 세상을 배워 세상과 교류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나 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포용'이다. 노소나 상하 구별 없이, 노인과 젊은이 모두가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포용 사회'를 일구는 데 노인건강타운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의 꿈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theaters like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시네마 with their respective movie listings.